

“컨벤션 행사 줄취소... 마이스산업 대책은”

“뽕뽕 숨긴 침수흔적 정보 알려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코로나에 181건 취소·연기 제주 ICC 적자 가중 불보듯 운영방식 변화 필요성 요구 웰니스관광 의지 미흡 도마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의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어 적자폭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센터의 경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마이스(MICE) 산업 희생 대책 마련 등이 촉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관광국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ICC의 적자 운영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이후의 운영방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ICC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8월31일 기준 181건의 각종 행사들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오영희, 박호형, 문경은 의원. 한편 문경은 의원은 이날 '제주 전세버스 고사위기 직면' 기사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18년도 10억, 2019년도 8억 적자 운영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군다나 컨벤션센터는 다목적 마이스복합 시설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센터 운영자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컨벤션센터의 매출수익구조는 마이스사업 매출이 50.3%, 식음사업 수입 33.9%, 기타 영업수입 15.8%로 마이스사업 매출

이 증가 되고, 마이스사업 매출이 늘어야 부대적인 식음이나 기타 영업 수입이 늘는 구조”라면서 소규모 기업체나 단체의 인센티브 투여 유지 전환 등 구체적 대책이 있는지를 질타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은 코로나19 대응 전략 일환으로 웰니스관광 추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관광국의 추진 의지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정이 ‘제주형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육성’을 민선 7기 도시사의 공약과제로 정할만큼 선제적으로 앞선 관심을 뒀지만 2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시점의 이행 실적은 ‘웰니스관광 콘텐츠 발굴 15선’ 선정 이외에 웰니스관광협의회 구성, 지원조례 제정, 전담부서 지정, 기초조사, 마케팅 플랫폼 구축 등 추진사항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보건복지위원회

이승아, 재산권 침해 우려

제주지역 침수흔적도(풍수해로 발생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에 대한 정보 접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15일 제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침수흔적도는 행정기관만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일반 시민들이 침수 지역인줄 모르고 해당 지역에서 건설을 하거나 토지를 구입하면 나중에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침수흔적도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뽕뽕 숨기고 있을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표시한 침수흔적도를 지난 2006년부터 작성·보존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가 작성한 침수흔적도는 공간정보업무포털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각각 등록되는 데, 이 중 공간정보업무포털에는



이승아 의원

2016년까지 작성된 침수흔적도만 등록되고 나머지는 등록되지 않았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공간정보업무포털에

나머지 침수흔적도를 등록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간정보업무포털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침수흔적도는 행정기관만 확인할 수 있고 일반인은 직접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이 침수흔적도를 보려면 제주도 당국에 침수흔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반면 서울시와 원주시,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민원인의 발급 요청이 없어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침수흔적도를 공개하고 있다. 제주시역에 비해 침수흔적도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침수흔적도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더 빠르고 편리?... 갈길 먼 대중교통 체계

“10년 넘은 마을만들기, 평가 엇갈려”

환경도시위원회

우선차로제 있으나마나에 무늬만 ‘급행버스’ 지적도

2017년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됐던 제주도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가운데,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의 준수 여부가 미미한데다, 지역 곳곳에서는 버스 노선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등 반쪽짜리 개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



김희현 의원 양병우 의원

정사무감사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 을)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의 위반 건수 6만5000여 건 중 렌터카가 2만6000여 건으로 (전체 위반율의) 4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또 전체 위반 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747건에 불과하고 납부율도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에 대한 위반 사항의 단속이 이뤄지

지 않고 있다 보니 정책효과도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승용차보다 빨리 가고 편리하다는 목적으로 수익 원을 들이면서 우선 차로를 만드는 등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실시했는데 이렇 거면 무슨 필요가 있다. 제주도가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책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와 관련 과태료는 4월부터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문제로 보류됐다”며 “올해 내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요금이 3000원이 넘는 급행버스가 1200원 요금의 완행버스보다 느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제주시에서 평화로를 지나 서귀포시 대정읍 가는 구간에는 급행버스

(하루 76회)와 완행버스(하루 136회)가 운행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급행버스는 81분에서 82분쯤 소요되고, 완행버스는 가장 느린 노선이 85분, 빠른 노선은 80분 정도 소요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문경진 국장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급행버스가 공항을 경유하게 되면서 시간이 초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공항을 경유하면서 10분을 추가해도 급행과 완행의 경우 큰 차이가 없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에는 60여분이 소요됐는데, 개편 이후 80분대로 늦춰졌다”며 “급행이라고 불렀으면 터미널을 기준으로 완행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문 국장은 “시간을 단축하려면 구간별 운행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며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준공영제 3년을 맞았고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태윤기자 ty456@ihalla.com

행정자치위원회

지사 대권행보 놓고 신경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대권행보에 따른 행정공백 여부를 추궁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서귀포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동1·건입동)은 질의를 통해 “대선시계가 빨라지며 원희룡 지사의 외부 출장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점점 잦아지며 도정공백이 우려된다. 서귀포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일정 부분은 부담이 있



문종태 의원 강민숙 의원

을 것”이라며 “하지만 ‘깁’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출장을 간다고 도정에 손을 놓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봉을 피해갔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마을만들기사업이 시작된지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적잖은 주민들의 이해·관심도가 낮고 평가 또한 엇갈리고 있다”며 “주민역량 강화와 함께 창고·가공시설 같은 공동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영준기자 yjhyeon@ihalla.com

제주지역 대학생이 함께하는 ‘생와 삶, 그리고 하루’

4·3전문가와 함께 하루동안 제주4·3평화기념관과 제주4·3평화공원을 돌아보며 제주4·3의 역사를 이해하고, 4·3희생자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대학생이 함께하는 ‘생와 삶, 그리고 하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주대학교와 제주4·3평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미래 교육의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4·3교육의 단계별 영역을 확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준비했습니다. 제주4·3의 역사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 행사일시 : 2020년 11월 6일(금) 10:00~18:00
- 행사장소 : 제주4·3평화공원
- 대 상 : 제주도내거주 대학생(대학원생) 30명
- 주 최 : 제주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 제주4·3평화재단

일 정	내 용	장 소
10:00~12:30	기념관 전시실·평화공원 관람(전문가 동행)	제주4·3평화공원
12:30~13:30	점심식사	
13:30~15:30	특강-제주4·3 바로알기	
15:30~15:40	휴식	
15:40~17:00	마음나누기(토론 및 소감)	

- 모집기간 : 2020년 10월 12일(월)~23일(금)
- 신청방법 :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 JNU 소식 - 신청서 다운로드 -
메일 접수(제주대학교 대외협력과 jejuobr@jeju.ac.kr)
- 기타문의 : 제주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064-754-4488), 제주4·3평화재단(064-723-4373)

모든 것이 꽃피워 왔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수강생모집

제주II
60+교육센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인생 3모작에 도전하는 60세이상 시니어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차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간	교육내용
전래 창의인성놀이 교육강사 양성과정	선착순 20명 2020년 10월 24일(토)~10월 25일(일) 시간 09:00 ~ 18:00	- 전통 전래놀이 이론 및 이해 - 세시풍속과 절기 - 놀이와 소통 - 색감활용한 융합놀이 - 도형을 활용한 심리분석 및 놀이지도

- * 신청대상 : 제주도민 만60세이상 (1960. 10. 23 이전 출생자)
- * 수 강 료 : 전액무료
- * 신청방법 : 전화접수 064)727-1297 010-3639-3922
- * 교육장소 : 제주시 도남로 142, 101호
- * 자격증비 별도입니다.
- * 신청기간 : 20.10/16 ~ 10/23 (선착순 20명 접수)

주관 : 사)치매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후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 레아몬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문,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등록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